

桑樹와 古代 誕生神話의 相關的 意義*

尹 順**

<目 次>

1. 緒論
2. 『山海經』에 나타난 桑蠶의 女神
 - 1) “一女子跪踞擘蠶絲”
 - 2) 帝女之桑
 - 3) 嫫祖
3. 桑樹와 관련된 誕生神話와 傳說
 - 1) 小吳 誕生神話와 『詩經·桑中』
 - 2) 伊尹 誕生傳說과 採桑
 - 3) 孔子 誕生神話와 桑社
4. 結論

1. 緒論

桑樹, 즉 뽕나무는 上古時代로부터 인류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무다. 考古學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일찍이 新石器時代 良渚文化 시기(約 5300-4000年前)에 이미 蠶絲를 사용하여 방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良渚文化 유물은 1936년에 杭州市 북쪽 18km 쯤에 있는 餘杭區 良渚鎮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그 중 현재 浙江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良渚文化 絲帶’는 浙江省 紡織科學研究所에 의해 원료가 蠶絲로 鑑定된 바 있다. 그러므로 늦어도 그 시기에 이미 뽕잎을 채취하여 누에를 치고,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로 의복을 지어 입

* 이 논문은 2014-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

있음을 알 수 있다. 桑樹는 인류 生存의 기본인 衣食住 중에서 衣와 食을 해결해 주었던 물질적 주요자원으로, 蠶絲로 衣服을 지어 입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일 뿐 아니라, 그 열매인 오디(桑椹)는 평소에도 먹지만 말려두었다가 흉년이 들 때 먹었던 救荒食品이기도 하였다. 오디는 또한 一萬년에 한번 열매를 맺는 不老長生の 신비한 仙藥으로 여겨지기도 했다.¹⁾ 그러므로 上古時代 이후로 甁나무는 인류를 입혀주고 먹여주던 어머니 같은, 나아가 永生不死를 염원하는 인류의 꿈도 이루어줄 수 있는 靈藥으로 여겨지던 나무였다.

農耕社會로 진입하면서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孟子·梁惠王上』은, “다섯 두둑 땅만 있는 집이라도 甁나무를 심으면 나이 오십에 이른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다(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²⁾ 라고 웅만한 집이면 桑樹를 심도록 장려하였다. 甁나무는 고향을 멀리 떠난 이들에게는 고향을 상징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을 보면 桑樹를 심은 부모와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³⁾ 또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甁나무로 만든 활로 축대 화살을 天地四方을 향해 쏘았는데, 이 “桑弧蓬矢”는 아이가 성장한 후 遠大한 포부를 품으라는 부모의 염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桑樹는 늘 일상생활의 주변에 가까이 있고 가슴에 스며있는 친숙한 나무였다.

남자는 농사짓고 여자는 베 짜던 ‘男耕女織’의 시대에 甁잎 따는 일은 전적으로 여성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소 물고 논밭에 나가던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봄날 甁잎 따는 처녀들의 이름다운 모습은 많은 詩歌의 소재가 되었다. 『詩經』에는 採桑女를 흠모하거나 만남을 갖는 등의 愛情詩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桑樹를 매개로한 青春남녀의 만남은 古代 誕生神話와 깊은 관련이 있다.

1) 『拾遺記』: “窮桑은 西海의 물가로, 거기에 孤桑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千尋이고, 잎은 붉고 열매는 보라색이다. 만년에 한번 열매를 맺는데, 먹으면 불로장생한다(窮桑者, 西海之濱, 有孤桑之樹, 直上千尋, 葉紅椹紫, 萬歲一實, 食之後天而老).” ((晉)王嘉, 『拾遺記』, 木鐸出版社, 1982, 13쪽.)

2) 『十三經注疏·孟子』, 藝文印書館, 1976, 12-13쪽.

3) 『詩經·小雅·小弁』: “甁나무(桑)와 가래나무(梓)를,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해야 하리라(維桑與梓, 必恭敬止).” (孔穎達疏: “부친이 심으신 것이니, 桑樹와 梓樹를 보면 반드시 지극한 공경을 해야 한다(父之所樹者, 維桑與梓, 見之必加恭敬之止).”) (『十三經注疏·詩經』, 藝文印書館, 1976, 421쪽.)

桑樹는 또한 고대 중국인들의 정신세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그에 관한 많은 神話가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太陽神이 머무는 扶桑나무와, 三桑·若木 등에 관한 신화라 할 수 있다. 이 신화들에 관해서는 이전의 연구를 통해 논문들을 발표를 했던 바,⁴⁾ 본고에서는 桑樹와 여성의 관계, 桑樹와 神이나 非凡한 인물들의 誕生과의 연관성 및 그 意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山海經』에 나타난 桑蠶의 女神

原始農耕社會에서 甍잎을 따서 누에를 치고, 누에고치에서 蠶絲를 추출하여 織造하고, 그것으로 옷을 짓는 등의 일은 주로 여성이 맡아하던 일이었다. 그래서 蠶事의 기본재료인 桑樹는 여성과 깊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먼저 『山海經』에 나타난 桑蠶과 蠶事의 女神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一女子跪踞樹歐絲”

『山海經·海外北經』에는 甍나무에 기대 꿇어앉아 실을 토하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

“歐絲의 들은 大踵의 동쪽에 있는데,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나무에 기대어 실을 토하고 있다. 三桑나무는 가지가 없다. 歐絲의 동쪽에 있는데, 그 나무는 길이가 백 길이며 가지가 없다.”

郭璞은 이에 注를 달아, “甍잎을 먹고 실을 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누에

4) ‘扶桑’나무는 天帝의 아들인 열 개의 太陽이 머무는 神樹다. 『山海經·海外東經』은, “湯谷에 扶桑나무가 있는데, 열 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으로 黑齒國 북쪽에 있다. 물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아홉 개의 태양은 아래 가지에 있고, 하나의 태양은 윗가지에 있다(湯谷上有扶桑, 十日所浴, 在黑齒北, 居水中, 有大木, 九日居下枝, 一日居上枝).”라고 하였다. (拙稿, 『楚辭』九歌·東君』巫儀와 扶桑神話』(『國際文化研究』第18輯, 2000. 2月)와, 『三星堆青銅神樹와 十日神話』(『人文科學論集』第48輯, 2014. 2月) 참조.)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하였고, 袁珂는 校注하여, “이 가지가 없는 三桑은 바로 뿔이 기대앉아 실을 토하는 여자가 먹는 것이다.”⁵⁾ 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심할 바 없는 누에의 형상이라 하겠다. 採桑·養蠶·蠶絲의 추출 등이 모두 전적으로 부녀자들이 하는 일이므로, 『山海經』에 등장하는 가장 원시적인 蠶神은 이와 같이 누에의 행태를 띠고 있는 女性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2) 帝女之桑

『山海經·中山經』에는 天帝의 딸과 연관된 桑樹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 동쪽으로 50리를 가면 선산이다. ……그 산위에 뽕나무가 있는데, 크기가 열 자고, 가지는 네 갈래로 갈라졌으며, 잎은 크기가 한 자가 좀 넘는다. 붉은 곁에 노란 꽃을 피우고 푸른 꽃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帝女桑이라 한다.⁶⁾

東晉의 郭璞은 이에, “부녀자가 주로 蠶事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뽕나무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婦女主蠶, 故以名桑)”라고 注하였다. ‘主蠶’은 ‘蠶事’를 주관한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帝女가 蠶事를 관리하는 蠶神의 神格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郭璞은 또 『山海經圖讚·帝女桑』에서는,

爰有洪桑, 生瀆淪潭. 거대한 뽕나무, 깊은 물가에 있네,
厥圍五丈, 枝相交參. 둘레는 다섯 길에 가지가 서로 뒤얽혀 있구나.
園客是採, 帝女所蠶. 동산에 올라와 뽕잎을 따서, 천제의 따님이 누에를 치네.⁷⁾

5) “歐絲之野在大踵東, 一女子跪據樹歐絲. 三桑無枝, 在歐絲東, 其木長百仞, 無枝.” (郭璞注: “言噉桑而吐絲, 蓋蠶類也”. 袁珂校注: “此無枝之三桑, 當即跪據樹歐絲女子之所食也.”) (袁珂, 『山海經校注·海外北經』, 巴蜀書社, 1996, 290-291쪽.)

6) 『山海經·中山經』: “又東五十五里, 曰宣山. ……其上有桑焉, 大五十尺, 其枝四衢, 其葉大尺餘, 赤理黃華青柎, 名曰帝女之桑.” (袁珂, 위의 책, 208쪽)

7) 郝懿行, 『山海經箋疏』, 臺灣中華書局, 1975, 『山海經圖讚』 부분, 21쪽.

라고 읊었다. 天帝의 딸이 뽕잎을 따던 桑樹여서 '帝女桑'이라 불렀다고 한 것인데, 北宋의 李昉 등이 편찬한 『太平御覽』 卷921은 『廣異記』를 인용하여 帝女桑과 연관된 蠶事의 습속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남방 赤帝의 딸이 道를 수련하여 신선의 道를 얻어서 남양 악산의 桑樹 위에 거주하였다. 정월 초하루부터 나뭇가지를 물어다 등지를 짓기 시작하여, 보름이면 다 짓는데, 어떤 때는 하얀 까치, 어떤 때는 여인의 모습이 었다. 적제가 보고 비통해 하며 내려오라 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불로 나무를 태우니 딸은 곧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나무 이름을 帝女桑이라 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정월 보름에 까치집을 태워 재물을 만들어서 누에를 담귀 실을 짓는 것은 이것을 본 딴 것이다.⁸⁾

이 기록으로부터 帝女가 赤帝, 즉 炎帝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主蠶'하는 그녀가 뽕나무에 머물다 神仙이 되어 승천한 것과, 아울러 宋나라 때의 특이한 蠶事 습속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3) 嫫祖

실제로, 뽕잎을 따서 누에를 치고 蠶絲로 천을 짜는 등의 蠶事를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후세에 蠶神으로 받들어지는 先蠶⁹⁾은 바로 黃帝의 元妃 嫫祖이다. 嫫祖는 고문헌에서 雷祖·累祖·儻祖 등으로도 표기되고 있다. 『山海經·海內經』에는 雷祖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黃帝의 처 雷祖가 昌意를 낳았다.

8) http://www.360doc.com/content/13/0504/14/10515216_282889798.shtml(廣異記): “南方赤帝女學道得仙, 居南陽楞山桑樹上. 正月一日銜柴作巢, 至十五日成, 或作白鵲, 或女人. 赤帝見之悲慟, 誘之不得, 以火焚之, 女即升天, 因名帝女桑. 今人至十五日焚鵲巢作灰汁, 浴蠶子招絲, 象此也.” (袁珂, 위의 책, 209쪽. 袁珂 校注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 인터넷 자료를 함께 참조함.)

9) 先蠶은 古代 傳說에서 처음으로 양잠을 가르친 神을 일컫는다. 이것은 神話시대에 백성들에게 최초로 농경을 가르친 神農을 후세에 先農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郭璞注: 『世本』은 말하기를, “黃帝가 累祖라 부르는 서릉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라고 말했다.)¹⁰⁾

郭璞의 注에서 보듯이 『世本』은 累祖로 표기하고 있다. 南宋 羅泌의 『路史·后紀五』는 僂祖로 표기하였는데, 袁珂는 이를 인용하여 위 『山海經·海內經』에 校注하기를,

黃帝의 첫째 부인은 서릉씨로 僂祖라 하는데, 그가 蠶事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한 先蠶으로 제사드렸다.¹¹⁾

라고 하였다. 羅泌보다 조금 이른 北宋시대의 劉恕는 『通鑑外紀』에서,

서릉씨의 딸 嫫祖는 黃帝의 첫째 부인인데, 백성들에게 누에를 기르고 누에고치를 다루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의복을 공급하게 하여 후세에 先蠶으로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¹²⁾

라고, 嫫祖가 처음으로 蠶事를 가르친 先蠶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山海經』 중에서 원시적 형태의 蠶神이나 先蠶은 모두 女神으로 나타난다. 이는 採桑을 비롯한 모든 蠶事가 전적으로 부녀자들의 일로, 上古時代로부터 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採桑하는 여인들이 모이는 뽕나무는, 아름다운 採桑女를 연모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청춘남녀를 만나게 해주던 뽕나무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탄생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되었던 바, 桑樹와 연관된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다음 제3장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10) “黃帝妻雷祖, 生昌意.” (郭璞注: “『世本』云, 黃帝娶于西陵氏之子, 謂之累祖.”)

11) “黃帝元妃西陵氏曰僂祖, 以其始蠶, 故又祀先蠶.”

12) “西陵氏之女嫫祖, 爲帝元妃, 始教民育蠶治絲繭, 以供衣服, 後世祀爲先蠶.” (林尹·高明主編, 『中文大辭典』(一), 中國文化學院出版部, 1980年, 1325쪽에서 인용.)

3. 桑樹와 관련된 誕生神話와 傳說

1) 小昊 誕生神話와 『詩經·桑中』

少昊는 西方天을 다스리던 五帝중의 한 天帝다. 陰陽五行에서 서쪽은 金이고, 方位色은 흰색이므로 白帝라고도 부른다.¹³⁾ 『山海經·西山經』을 보면,

또 서쪽으로 백리를 가면 長留山인데 天神인 白帝 小昊가 산다. ……
(이 산은) 실은 員神 외씨의 궁전이다. 이 神은 주로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동쪽으로 반사하는 빛을 관리한다.¹⁴⁾

라고, 그가 西方의 天帝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小昊의 아버지는 太白 金星이고, 어머니는 皇娥이다. 小昊의 별호는 白帝 이외에 金天氏·窮桑氏·桑丘氏라고도 칭해지는데, 그가 '窮桑氏·桑丘氏'라고 불리우는 데에는 그의 誕生과 桑樹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東晉 王嘉의 『拾遺記』는 그의 탄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小昊는 金의 德으로 왕이 되었다. 어머니는 皇娥인데 아름다운 돌로 지은 궁에 살면서 밤에는 베를 짜다. 낮에는 가끔 뗏목을 타고 노닐며 窮桑의 드넓은 포구까지 갔다. 그때 용모가 속세를 벗어난 비범한 동자가 있어, 白帝의 아들이라 칭하니 곧 太白 金星의 精氣였다. 물가로 내려와 皇娥와 잔치를 열어 즐겁게 노닐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뱃놀이를 하며 돌아가기를 잊었다. 窮桑은 西海의 물가로, 거기에 孤桑이라는 나무가 있다. 높이가 千尋¹⁵⁾이고, 잎은 붉고 열매는 보라색이며 萬年에 한번 열매를 맺는데, 먹으면 불로장생한다. …… 白帝의 아들과 皇娥는 나란히 앉

13) 『淮南子·天文訓』: “西方은 金으로, 그 천제는 小昊이고, 보좌신은 蓐收다. 그는 곱자를 잡고 가을을 관리한다, 그 神은 太白이다(西方金也, 其帝小昊, 其佐蓐收, 執矩而治秋, 其神曰太白).” ((漢)高誘注釋, 『淮南子』, 華聯出版社, 1973, 37쪽)

14) “又西二百里, 曰長留之山, 其神白帝少昊居之. …… 實惟員神魄氏之宮. 是神也, 主司反景.” (郝懿行은 위의 책 『山海經·西山經·湫山』에서 ‘魄氏’에 疏하여, “이 동근 기상의 신 員神은 小昊일 것이다(是神, 員神, 蓋卽小昊也).” 라고 하였다.)

15) 古代의 길이 단위로 1尋은 8尺이다.

아 오동나무 거문고와 가래나무 큰 거문고 연주하였다. 皇娥가 큰 거문고에 기대어 청아하게 노래하였다. …… 민간에서는 그들이 즐겁게 노닐던 곳이 ‘桑中’이라 하였다. 『詩經』 중의 「衛風」에 이르기를, “나와 桑中을 기약하고.”라 한 것이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것이다. …… 皇娥가 小昊를 낳고 이름을 窮桑氏라고 짓고, 또 桑丘氏라고도 불렀다.¹⁶⁾

밤이면 베를 짜던 少昊의 어머니는 낮에 西海 물가 窮桑에 놀러갔다가, 孤桑이라는 커다란 뽕나무 아래에서 西方天帝 白帝의 아들 太白 金星과 알게 되어 함께 노닌다. 그리고 이로 인해 小昊를 낳게 된다. 위 인용문에서, 白帝의 아들과 皇娥가 즐겁게 노닐던 곳이 ‘桑中’인데, 그것이 『詩經』 중 「衛風」의, “나와 桑中을 기약하고”와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衛風」은 곧 「鄘風」이고, 「桑中」은 『詩經·鄘風』 중의 한 篇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爰採唐矣, 沫之鄉矣.	어디서 松蘿를 따나? 메이江 마을에서지요.
云誰之思? 美孟姜矣.	누굴 생각하냐고요? 아름다운 강씨댁 큰따님.
期我乎桑中, 要我乎上宮,	나와 桑中을 期約하고, 날 上宮에서 맞이하고,
送我乎淇之上矣.	淇水 강가에서 날 보내지요.

爰采麥矣? 沫之北矣.	어디서 보리를 베나? 메이江 북쪽에서지요.
云誰之思? 美孟弋矣.	누굴 생각하냐고요? 아름다운 익씨댁 큰따님.
期我乎桑中, 要我乎上宮,	나와 桑中을 期約하고, 날 上宮에서 맞이하고,
送我乎淇之上矣.	淇水 강가에서 날 보내지요.

爰采葑矣? 沫之東矣.	어디서 순무를 캐나? 메이江 동쪽에서지요.
云誰之思? 美孟庸矣.	누굴 생각하냐고요? 아름다운 용씨댁 큰따님.
期我乎桑中, 要我乎上宮,	나와 桑中을 期約하고, 上宮에서 날 맞이하고,
送我乎淇之上矣.	淇水 강가에서 날 보내지요.

16) “少昊以金德王。母曰皇娥，處璇宮而夜織。或乘桴木而晝遊，經歷窮桑滄茫之浦，時有神童，容貌絕俗，稱爲白帝之子，卽太白之精，降乎水際，與皇娥宴戲，奏婁娟之樂，游漾忘歸。窮桑者，西海之濱，有孤桑之樹，直上千尋，葉紅椹紫，萬歲一實，食之後天而老。……帝子與皇娥并坐，撫桐峰梓瑟，皇娥倚瑟而清歌。……俗謂遊樂之處爲桑中也。『詩』中「衛風」云：‘期我乎桑中。’蓋類此也。……及皇娥生少昊，號曰窮桑氏，亦曰桑丘氏。”(王嘉，註1)과 같은 책, 12-13쪽.)

「毛詩序」는 이 시에 대해, 衛왕실이 음란하여 남녀 간에 정분이 나는 것에 대해 諷刺한 것이라 했다.

「桑中」은 정분난 것을 풍자하는 것이다. 衛나라 왕실은 음란하여 남녀가 서로 정분이 났는데, 귀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서로 처첩을 훔쳐 은밀한 곳에서 만날 기약을 하기에 이르니, 정치는 혼란하고 백성들은 떠돌아다니게 되어도 멈추지를 않았다.¹⁷⁾

陳子展은, 이 설을 따르는 후세의 儒家的 해석들을 열거하며 귀족남녀의 음란함을 폭로한 諷刺詩라 주장하였다. ‘桑中·上宮·淇水之上’은 은밀히 여색을 탐하는 장소이고, ‘唐·麥·葑을 따고·베고·캐는’ 것은 어찌면 음란하게 정분난 자들이 타인의 耳目을 가리려고 그러는 척했던 평계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¹⁸⁾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열정 가득한 청년의 자유분방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그 어떤 풍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朱自清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이름은 시의 押韻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은 한 여인으로, 그녀를 향한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반복해서 표현한 詩라고 하였다.¹⁹⁾

袁梅는 『詩經譯注』에서 朱自清의 견해에서 발전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고대 歌唱者가 밭에서 일하던 중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던 노래일지도 모른다. 시 속의 아름다운 孟姜·孟弋·孟庸은 실제로 한 사람이거나, 혹은 실제로의 그녀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단지 가창자 상

17) “「桑中」, 刺奔也. 衛之公室淫亂, 男女相奔, 至于世族在位, 相竊妻妾, 期於幽遠, 政散民流而不可止.” (『詩經』, 앞의 책, 113-114쪽)

18) 陳子展, 『詩經直解』, 復旦大學出版社, 1985, 146-149쪽 참조.

19) 朱自清, 『中國歌謠』: “我以為這三個女子的名字, 確實只是爲了押韻的關係, 但我相信這首歌所以要三迭, 還是歌者情感的關係……他心裏一個愛着的或思慕的女子, 反復歌咏, 以寫其懷那三個字, 或者只有一個真的, 或者全不是真的——他用了三個理想的大家小姐的名字, 也許只是代表他心目中的一個女子.” (金軍華, 『『詩經·鄘風·桑中』主題新解』, 『語文學刊』2008年第11期에서 再引.)

상 속의 미녀일 뿐인지도 모른다.²⁰⁾

여기서 孟姜·孟弋·孟庸은 실제로의 그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詩에는 식물을 채취하는 장소, 식물의 종류와 그에 따르는 채취의 時期, 아름다운 아가씨의 이름이, ‘沫之鄉—唐—孟姜’, ‘沫之北—麥—孟弋’, ‘沫之東—葑—孟庸’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나는 여인을 당연히 각기 다른 세 명의 여인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래하는 청년이 만나는 대상이 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桑中」篇의 후렴구인, “나와 桑中을 기약하고, 날 上宮에서 맞이하고” 에서는 약속 장소인 ‘桑中’과, 맞이하는 장소인 ‘上宮’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郭沫若是 『甲骨文研究』에서 말하기를,

桑中은 桑林이 있는 곳이고, 上宮은 桑林에 제사하는 사당인데, 남녀가 이곳에서 合歡하였다. …… 桑林 제사 때의 일은, 『鄘風』 중의 「桑中」에서 읊은 것이 그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²¹⁾

라고 했다. 桑林의 제사 습속은 고대 중국에서 널리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墨子·明鬼』篇을 보면,

燕나라에 祖가 있는 것은, 齊에 社稷, 宋에 桑林, 楚나라에는 雲夢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이곳은 男女가 모여 만나는 곳이다.²²⁾

20) “它可能是古代歌者在田野勞動中隨口編唱的。詩中的美孟姜、孟弋、孟庸，實乃一人，也許實有所指，也許只是歌者想象中的美女而已。”(袁梅, 『詩經譯注』, 齊魯書社, 1983年, 181-182쪽)

21) “桑中即桑林所在地, 上宮即祀桑之祠, 士女于此合歡。……其祀桑林時事, 余以爲『鄘風』中之「桑中」所咏者, 是也。”(陳偉軍, 『先秦詩鑑賞辭典·桑中』에서 재인용. 姜亮夫等撰, 『先秦詩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0年, 94쪽)

22) “燕之有祖, 當齊之有社稷, 宋之有桑林, 楚之有雲夢也。此男女之所屬而觀也。”(『墨子問詁』(『漢文大系』第14卷), 民族社, 1982, 8-9쪽)

라 했는데, 上古時代 桑林의 제사로는 『呂氏春秋·順民』篇에 기록된 殷(商) 湯王의 祈雨제사가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다.

옛날 商湯王은 夏나라를 멸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날이 크게 가물어 5년 동안 곡식을 수확하지 못했다. 湯王은 이에 친히 桑林에서 제사하여 말하기를, “저 한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만민에게 죄를 끼치지 마소서. 만민에게 죄가 있다면, 모두 저 한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한사람의 불민함으로 上帝와 鬼와 神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생명을 다치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머리를 자르고 손가락을 형틀에 끼워 눌러 자신을 희생으로 삼아 상제에게 복을 빌자, 백성들이 심히 기뻐하고, 비가 크게 내렸다.²³⁾

高誘는 이에, “桑林은 桑山の 숲으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라고 注했다. 『淮南子』에도 湯王의 祈雨제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主術訓」: 湯王 때에 7년간 가뭄이 들어 자신의 몸으로 桑林에 기도할 때에, 四海의 구름이 모이고 千里 밖의 비도 이르렀다.

「修務訓」: 湯王은 자신의 몸으로 桑山の 숲에서 기도했다.²⁴⁾

高誘는 『淮南子』의 「修務訓」에도, “桑山の 숲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다.” 라고, 『呂氏春秋』와 같게 桑林이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다(能興雲作雨)” 라고 注하고 있다.

桑林은, 오로지 하늘에 의지해 농사를 짓던 고대 농경사회에서 농작물의凶·豐年과, 나아가 그로 인한 백성의 생명을 좌우하던 비를 신께 빌었던 祈雨제사의 장소였다. ‘桑中’은 또한 남녀가 만남을 갖는 장소이기도 했다. 聞一多是 「高唐神

23) “昔者湯克夏而正天下。天大旱，五年不收。湯乃以身禱于桑林。曰：‘余一人有罪，無及萬夫，萬夫有罪，在余一人，無以一人之不敬，使上帝鬼神傷民之命。’于是翦其髮，櫛其手，以身爲犧牲，用祈福于上帝。民乃甚說，雨乃大至。”(高誘注：桑林，桑山之林，能興雲作雨也。)(『呂氏春秋譯注』，위의 책，234쪽)

24) 『淮南子·主術訓』：“湯之時，七年旱，以身禱于桑林之際，而四海之雲湊，千里之雨至。”『淮南子·修務訓』：“湯旱，以身禱于桑山之林。”(高誘注：桑山之林，能興雲作雨，故禱之。)(漢)高誘注釋，위의 책，130쪽，332쪽.)

女傳統之分析」에서,

桑林은 본시 桑山 숲의 약칭이다.…… 楚나라의 雲夢은 宋나라의 桑林에 해당한다.…… 하물며 桑林神이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雲夢神이 “아침에는 흐르는 구름 되고, 저녁엔 내리는 비가 되리라”와 교묘하게 같음에랴? …… 총괄하자면, 社는 반드시 숲속에 있고, 社는 또 林이라고도 하니 林과 社는 같다. 그러므로 桑林은 곧 桑社다. 宋과 衛는 모두 殷나라의 후예다. 그래서 두 나라의 풍속이 같아서 모두 桑林에 ‘社’²⁵⁾를 세웠는데, 명칭에 있어서 한 나라는 桑林이라 하고, 한 나라는 桑中 혹은 桑間이라 하였다. 媒氏가 주관하는 “남과 여를 만나게”하던 일은 음탕한 訟事를 듣는 것처럼 ‘社’안에서 거행되어서, 媒氏와 ‘社’의 관계는 또 加一層 깊어졌다.²⁶⁾

라고 楚襄王과 高唐神女가 만나 노닐던 『楚辭·高唐賦』를 인용하며,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는(興雲作雨)” 것은 남녀의 ‘雲雨의 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鮑昌은 『風詩名篇新解』에서,

(上古 야만시대의 사람들은) 인간 남녀가 교합하면 만물의 번식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여겨서, 많은 農神의 祭典 중에는 모두 群婚性的인 남녀의 모임이 수반되어 있었다.…… 鄭과 衛나라에는 여전히 상고시대의 유습이 남아있어, 仲春·夏祭·秋祭 때에 남녀가 合歡한 것은 바로 원시민족의 生殖崇拜의 儀式이다.…… 「桑中」詩에서 묘사한 것은 바로 古代의 이런 풍속의 遺習이다.…… 결코 간단하게 ‘음란하다’라고 지적할 수만은 없다.²⁷⁾

25) ‘社’는 祭壇이나 神을 모신 사당을 말한다. 『詩經·桑中』篇의 ‘上宮’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桑社’에 대해서는 本章 제3절에서 다시 논할 것임.

26) “桑林本是桑山之林的省稱, …… 楚之雲夢相當于宋之桑林, …… 何況桑林之神能興雲作雨, 與雲夢之神朝爲行雲, 暮爲行雨”又是不約而同呢? …… 總之, 社必在林中, 所以社一曰林. 林與社同, 所以桑林即桑社了. 宋衛皆殷之後, 所以二國的風俗相同, 都在桑林之中立社, 而在名稱上, 一曰桑林, 一曰桑中或桑間, …… 媒氏所主管的“會男女”的事物同聽陰訟一般, 也在社中舉行, 則媒氏與社的關係又加深一層.” (聞一多, 『高唐神女傳統之分析』, 『死水·神話與詩』, 貴州教育出版社, 2001, 168-170쪽.)

27) “(上古蠻荒時期人們)以爲人間的男女交合可以促進萬物的繁殖, 因此在許多祀奉農神的祭典中, 都伴隨有群婚性的男女歡會.…… 鄭·衛之地仍存上古遺俗, 凡仲春·夏祭·秋祭之際男女合歡, 正是原始民族生殖崇拜之儀式.…… 『桑中』詩所描寫的, 正是古代此類風俗的孑遺.…… 決不能簡單斥之爲淫亂.” (姜亮夫等撰, 『先秦詩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0年, 94쪽에서)

라며, 仲春·夏祭·秋祭 즉 봄과 여름 가을의 제사 때에 남녀가 合歡하는 것은 농작물의 번식과 성장을 촉진하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祭祀儀式이 었기 때문에 음란한 일로 보면 안 된다고 하였다.

『詩經·桑中』篇은, 일반 청년남녀들이 '桑中'에서 만나 '上宮'에서 노닐고 헤어 져가는 과정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神을 모신 사당인 '上 宮'에서 행해진, 농작물의 성장과 豐收를 비는 桑中제사의 실상을 詩로 표현한 것 이라고 본다. 계절마다 채취하는 농작물이 다르듯이, 桑中제사에서 남녀는 그때 마다 다른 대상과 자유롭게 만남을 가졌는데, 이것은 농작물의 번식을 촉진시키고 자 행했던 제사 습속 중의 한 儀式이었다.

小昊의 誕生은, 이러한 上古時代 농경사회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관습적인 祭儀 인 '窮桑'의 桑中제사에서 白帝의 아들과 皇娥가 만난 사랑의 결실이라 하겠다.

2) 伊尹 誕生傳說과 採桑

伊尹은 空桑이 낳고 採桑女에 의해 발견된다. 그는 殷湯王²⁸⁾시대 사람으로, 종이라는 미천한 신분으로 湯王에게 갔지만, 음식을 잘 만들고 현명하여 왕의 곁 에서 잘 보필하고 후에 名宰相이 된다. 戰國시대 呂不韋의 『呂氏春秋·本味 篇』에는 그의 탄생에 관한 전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유신씨 여자가 뽕잎을 따다 空桑 속에서 어린아이를 얻어 임금에게 바 쳤다. 임금은 숙수에게 기르라 명하며 그 까닭을 살피라 하였더니, 말하 기를 “그 어미가 伊水 강가에 살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니다. 꿈에 신이 나타 나 알려 말하길 ‘절구에 물이 나오면 동쪽으로 가되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

재인용.)

- 28) 殷의 始祖인 契(契)의 탄생 역시 桑樹와 무관하지 않다. 王嘉는 『拾遺記』卷二에서, “商의 시작은, 神女 簡狄이 뽕나무들판에서 노닐다가 검은 새가 알을 땅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주워서...알을 품었다. 一年이 되자 임신이 되었고, 14개월이 지나 설을 낳아서 된 것이다 (商之始也, 有神女簡狄, 游于桑野, 見黑鳥遺卵于地, ...簡狄拾之, ... 狄乃懷卵, 一年而有娠, 經 十四月而生契).” 라고 했다. 하였으니, 簡狄이 뽕나무들판(桑野)에서 노닐다가 임신이 되어 설을 낳은 것은 桑中제사에서의 자유로운 만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王嘉, 위의 책, 40 쪽.)

였답니다. 이튿날 보니 절구에 물이 나서, 이웃에게 알리고 동쪽으로 십리를 가서 뒤돌아보니, 그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기고 자신은 몸이空桑으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伊尹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이윤이 공상에서 태어난 까닭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성장하니 현명하였다. 湯王이 이윤의 얘기를 듣고 사람을 시켜 유신씨에게 그를 요청했다. 유신씨가 거절하였으나 이윤 역시 湯왕에게 가고 싶어 하였다. 湯왕은 그리하여 그의 딸을 아내를 맞아 혼인하기를 청하니 유신씨가 기뻐하며 딸의 종으로 이윤을 팔려 보냈다.²⁹⁾

北魏 酈道元の 『水經注·伊水』의 기록도 이와 大同小異하다. 略述하면, “옛날에 유신씨 여자가 伊水 가에서 甍甍을 따다 속이 빈 空桑나무 속에서 어린 아기를 얻었다. 그 어머니가 空桑으로 변했는데 아이가 그 속에 있었다. 성장하니 어질고 덕이 있어 殷王이 재상으로 삼아서 伊尹이라 불렀다”고 했다.³⁰⁾

甍甍 따는 것은 누에치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年中行事로 왕비가 직접 採桑儀式을 이끌었다. 『禮記·月令』에 이르기를,

季春의 달, 이달에 왕후와 비빈들은 재계하고 몸소 동쪽을 향하고 採桑한다. 부녀자들의 지나친 치장을 금지하고, 부녀자의 다른 일들을 줄여 누에치는 일을 하도록 권장한다. 누에치기가 끝나면 고치를 나누고, 뿔은 실의 무게를 달아 성과를 매긴다. 이것으로 郊廟제사의 祭服을 만들도록 바치니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³¹⁾

라고 하였는데, 이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祭服 만드는 실을

29) “有 侏氏 女子 採桑, 得 嬰兒 於 空桑 之中, 獻 之 其 君, 其 君 令 庖 人 養 之, 察 其 所 以 然, 曰, ‘其 母 居 伊 水 之 上, 孕, 夢 有 神 告 之 曰, “白 出 水 而 東 走, 毋 顧.” 明 日 視 白 出 水, 告 其 隣, 東 走 十 里, 而 顧 其 邑 盡 爲 水, 身 化 爲 空 桑, 故 命 之 曰 伊 尹. 此 爲 伊 尹 生 空 桑 之 故 也.’ 長 而 賢, 湯 聞 伊 尹, 使 人 請 之 有 侏 氏, 有 侏 氏 不 可, 伊 尹 亦 欲 歸 湯, 湯 於 是 請 娶 婦 爲 婚. 有 侏 氏 喜, 以 伊 尹 媵 女.” (張 雙 棣 等 譯 注, 『呂 氏 春 秋 譯 注』, 北 京 大 學 出 版 社, 2000, 378-379 쪽)

30) “昔 有 莘 氏 女, 採 桑 於 伊 川, 得 嬰 兒 於 空 桑 中, 言 其 母 孕 於 伊 水 之 濱, 夢 神 告 之 曰, 白 水 出 而 東 走, 毋 明 視 而 見 白 水 出 焉, 告 其 隣 居 而 走, 顧 望 其 邑, 咸 爲 水 矣. 其 母 化 爲 空 桑, 子 在 其 中 矣. 莘 女 取 而 獻 之, 命 養 於 庖, 長 而 有 賢 德, 殷 以 爲 尹, 曰 伊 尹 也.” ((後 魏) 酈 道 元, 『水 經 注』, 世 界 書 局, 1974, 203 쪽)

31) “季 春 之 月, …… 是 月 也, 后 妃 齋 戒, 親 東 鄉 躬 桑, 禁 婦 女 毋 觀, 省 婦 使, 以 勸 蠶 事. 蠶 事 既 登, 分 繭 稱 絲 效 功, 以 共 郊 廟 之 服, 無 有 敢 惰.” (『十 三 經 注 疏』, 『禮 記』, 藝 文 印 書 館, 1976, 304 쪽.)

헌납할 수 있는 영광을 얻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뽕잎을 많이 따야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녀자들이 뽕잎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 國家間의 전쟁을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史記·吳太伯世家』에는 採桑으로 인한 吳·楚간의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公子 光이 楚나라를 쳐서 居巢·鍾離를 빼앗았다. 시초에, 초나라 변읍의 비랑씨 처녀가 오 변읍의 여자와 뽕잎을 다투었는데, 두 여자의 집안이 화가 나 서로 싸웠다. 두 변읍의 읍장들이 이것을 듣고 노하여 서로 공격하여 吳나라 변읍이 졌다. 吳王이 노하여 마침내 楚를 공략하여 두 도성을 빼앗아 가게 된 것이다.³²⁾

이로써 고대로부터 桑樹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桑樹가 등장하는 『詩經』 속의 戀愛詩에서, 뽕나무는 청춘남녀의 사랑을 상징한다. 桑樹는 사랑의 매개이고, 桑林은 남과 여가 만나는 장소이다. 『詩經·魏風·十畝之間』은 바로 뽕잎 따는 아가씨를 사모하는 청년의 노래이다.

十畝之間兮，桑者閑閑兮， 열 두둑 밭 사이, 뽕잎 따는 아가씨 바쁘네.
行與子還兮， 그대와 함께 돌아가리.

十畝之間兮，桑者泄泄兮 열 두둑 밭 사이, 뽕잎 따는 아가씨 즐겁네.
行與子逝兮， 그대와 함께 가리라.

‘桑者’는 뽕잎 따는 採桑女를 가리킨다. “열 두둑 밭 사이(十畝之間)”는 桑林의 광대함을 나타내고, “閑閑”과 “泄泄”은 “왕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를 보면, 봄날 넓은 뽕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사랑스런 얼굴로 이리저리 다니며 뽕잎을 따는 아름다운 정경이 떠오르고, 젊은 총각들이 그 모습에 반하여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진다.

32) “公子光伐楚，拔居巢·鍾離。初，楚邊邑卑梁氏之處女與吳邊邑之女爭桑。二女家怒相滅，兩國邊邑長聞之，怒而相攻，滅吳之邊邑。吳王怒，故遂伐楚，取兩都而去。” ((漢)司馬遷, 『史記』, 大申書局, 1978, 1462쪽)

『詩經·邠風·七月』의 제2장에도 採桑女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春日載陽，有鳴倉庚。	봄날 햇빛 가득하고 피꼬리 울어댄다.
女執懿筐，遵彼微行，	아가씨 큰 바구니 들고, 오솔길 따라
爰求柔桑。	연한 뽕잎 따면서 가네.

이 시 역시 아름다운 아가씨가 푸른 뽕밭에서 여기저기 걸어 다니며 뽕잎을 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소 끌고 논밭에 일하러 나가던 총각이 이런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반하여 사랑의 마음이 싹트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뽕잎 따던 유신씨 여자에게 발견된 伊尹 역시 空桑의 桑林에서 싹튼 사랑의 결실인 바, ‘空桑’이 낳았다고 에둘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孔子 誕生神話와 桑社

먼저 ‘桑社’에 대해 살펴보면, ‘社’는 신계 제사지내는 신성한 장소이고, ‘桑社’는 주위에 뽕나무를 심어놓은 제단이나 사당을 말한다. 『周禮·大司徒』에 의하면, 祭壇 주위에 심는 社木으로는 그 지역 땅에 적합한 나무를 주로 심는다고 한다.

사직단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田主로 삼는데, 각기 그 들판에 적합한 나무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社와 들판의 이름을 지었다.³³⁾

『孟子·梁惠王上』에서 보았듯이, 중국이 예부터, “다섯 두둑의 땅만 있으면 뽕나무를 심으라.”고 하였으니, 대부분의 집 부근과 밭에 桑樹를 심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桑樹가 社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桑社에서의 제사는 주로 祈雨제사와 祈子를 하는 高禘제사였다. 高禘는 郊禘·郊禘로도 표기되는데, 高禘神의 사당을 성 밖의 郊外에 세웠기 때문이다. 高禘제

33) “設其社稷之壇，而樹之以田主，各以其野所宜木，遂以名其社與其野。”(『十三經注疏·周禮』，藝文印書館，1976，149쪽.)

사는 일 년 농사를 위한 기우제만큼 중요한, 자손이 번성하기를 비는 제사였다. 농경사회에서 보다 많은 수확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증가가 필요했다. 노동력의 증가는 곧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고,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나라를 지키는 兵力의 증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國語·越語』를 보면 자손 생산을 독려하고, 상까지 내려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나이 17세에 시집을 안가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고, 남자나이 20세에 장가를 안가도 그 부모에게 죄가 있다. 아기를 낳으려 할 때 보고하면 나라에서 의사를 보내 지키게 하였다. 아들을 낳으면 두 단지의 술과 개 한 마리, 딸을 낳으면 두 단지의 술과 돼지 한 마리를 주었다. 세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유모를 보내주고,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음식을 보내주었다.³⁴⁾

兵力과 노동력의 증가를 위한 자손의 생산은 국가와 백성 개개인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였다. 桑林의 高禘祭祀는 이같이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왕과 왕비가 직접 참여하여 집전했던 국가적인 행사였다.

『禮記·月令』: 仲春의 달,.....이달에는 제비가 오는데, 오는 날 太牢로 高禘에 제사한다. 천자가 직접 행차하고 왕비는 妃嬪들을 인솔하여 가서, 천자에게 예를 하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고매신 앞에 놓는다.
(鄭元注: 활과 화살을 놓는 것은 아들을 祈求하는 의미이다.)³⁵⁾

太牢는 소·양·돼지를 모두 갖춘 가장 융성한 祭物이고, '활과 화살'은 '男兒'를 상징한다. 가장 융성한 제물과 함께 활과 화살을 바치는 고매 제사는 자손의 번성, 특히 아들을 비는 祈子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청춘남녀는 반드시 참여해야

34) 來可泓撰, 『國語直解』, 復旦大學出版社, 2000, 891쪽, “女子十七不嫁, 其父母有罪, 丈夫二十不取, 其父母有罪, 將免者以告, 公令醫守之. 生丈夫, 二壺酒, 一犬, 生女子, 二壺酒, 一豚. 生三人, 公與之母, 生二人, 公與之餼.” (『十三經注疏·禮記』, 299-300쪽.)

35) “仲春之月, ……是月也, 玄鳥至. 至之日, 以太牢祠于高禘. 天子親往, 后妃帥九嬪御, 乃禮天子所御, 帶以弓鑊, 授以弓矢于高禘之前.” (鄭元注: 授以弓矢, 求男之祥也.) (『十三經注疏』, 『禮記』, 위의 책, 299쪽.)

했다.

『周禮·地官·媒氏』에 이르기를, 仲春의 달에는 남녀가 모이도록 명하는데, 이때는 情奔이 나는 자들도 금지하지 않았다. 만약 이유 없이 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벌하였다.³⁶⁾

이유 없이 명을 어기고 모임에 오지 않으면 벌을 내린 것이나, 청춘남녀는 반드시 참가하게 하고, 정분이 나도 금하지 않은 것은, 모두 자손의 번성을 통한 인구의 증가와 국력의 증강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仲春시절의 桑林의 高禘제사에서 남녀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정을 나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같이 ‘桑社’의 모임에서 남녀는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 何新은 『諸神的起源』에서,

社木으로서의 桑林은 남녀가 자유롭게 성교(즉 이른바 ‘野合’)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桑林’ 혹은 ‘桑間’은 후세에 중국 언어 중에서 음란한 장소를 표현하는 장소가 되었다. …… 桑社는 생식신의 상징이다. 그래서 桑林은 상고시대 先民들이 자유롭게 성교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고문헌의 기재로부터 보면, 이러한 자유로운 성교는 결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계절이나 시기에 비로소 예법과 풍속에 의해 허락되었다. 중국민속 중에서 이 계절은 바로 태양신이 인간세상에 강림하는 계절— 봄이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儀式을 ‘春社’, 혹은 ‘社會’라 불렀다.³⁷⁾

라고 하며, ‘社會’라는 단어가 이 ‘社에서의 모임(會)’에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서, ‘桑社’에서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交合한 것은 결코 현대인이 생각하듯이 그

36) “仲春之月，令會男女，於是時也，奔者不禁。若無故而不用令者，罰之。”(『十三經注疏·周禮』, 217쪽.)

37) “作為社木的桑林，是男女自由性交(即所謂‘野合’)的場所。所以‘桑林’·‘桑間’，後來就成為中國語言中表示淫穢之所的隱語。…… 桑社是生殖神的象徵，因此桑林成為上古時代先民們自由性交的場所。但是，從古文獻的記載看，這種自由性交並不是任何時候都可以進行的，它只在某些特定季節或時期，才是被禮法和風俗所允許的。在中國民俗中，這個季節就是‘太陽神在人間降臨的季節—春天。而這種活動的儀式，就叫做‘春社’，或叫作‘社會’。”(何新，『諸神的起源』，木鐸出版社，1987，166쪽.)

런 음란한 것이 아니고, 신께 올리던 祭祀儀式 중의 한 儀式이었음을 알 수 있다. '桑社'의 만남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治水로 유명한 禹임금이다. 禹인금은 부인인 塗山氏를 '台桑'에서 만나 사랑을 이루었다. 屈原은 『楚辭·天問』에서,

禹之力獻功,	禹임금은 힘을 다해 공을 이루고자,
降省下土四方,	강림하여 천하 사방을 살펴보았네.
焉得彼塗山女,	어찌하여 저 도산녀를 만나,
而通之于台桑?	台桑에서 사사로이 통하였나?
閔妃匹合,	배필이 없음을 걱정한 것은,
厥身是繼	후사를 얻기 위함이었네.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스로 답변하였다. 王逸은 이에, “禹가 治水를 하다 길에서 도산씨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고, 台桑의 땅에서 부부의 도를 통한 것을 말한다. …… 禹가 治水하다 도상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은 후사가 없음을 걱정했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注하였다.³⁸⁾

'台桑'은 桑林 속의 祭壇인 祭台, 즉 '桑台'의 倒置이다. 禹임금이 자신을 이을 후사를 얻기 위해 '台桑'에서 婚禮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은, 禹임금이 '桑社'의 高禘제사에 참여하여 祈子하고,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는 습속을 따라 塗山氏와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神話·傳說시대의 인물도 아니고, 더욱이 “怪力亂神”³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儒家思想의 창시자 孔子도 桑樹와 관련된 탄생신화를 가지고 있다. 『藝文類聚』卷88 '桑'部에 『春秋緯·春秋演孔圖』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공자의 어머니 顏氏 徵在가 신의 제단이 있는 비탈에서 노닐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 흑제가 함께 교제하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반드시 空桑에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했다. 깨어나자 감응이 된 것 같았으며, 丘를 空桑 가 언덕에서 낳았다.⁴⁰⁾

38) 王逸『天問章句』: “言禹治水, 道娶塗山氏之女, 而通夫婦之道於台桑之地. …… 言禹治水道娶者, 憂無繼嗣耳.” (『楚辭四種』, 華正書局, 1978, 56-57쪽.)

39) 『論語·述而』: “孔子는 괴이한 것·폭력·변란·귀신에 관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子不語怪·力·亂·神).”

라 했는데, 黑帝는 원래 北方의 天帝인데, 여기서는 孔子의 부친 叔梁紇을 신비한 존재로 표현한 것이다.⁴¹⁾ 『括地志』卷三 「曲阜縣」條에서도 공자가 空桑의 땅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연주 곡부현 魯城의 서남쪽 3리에 郕리가 있는데, 거기에 공자 가택이 있고 가택 안에 사당이 있다. …… 干寶의 『三日紀』는, “정재가 空桑의 땅에서 공자를 낳았는데 지금 地名은 공두다. 魯 남산의 공두에 있다”라고 했다.⁴²⁾

『史記·孔子世家』는 숙량홀과 안징재의 野合으로 공자가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자는 노나라의 창평향 추읍에서 태어났다. 그 선조는 공방숙이라 한다. 방숙은 백하를 낳고 백하는 숙량홀을 낳았는데, 홀과 안씨녀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으니, 尼丘에서 기도하여 공자를 얻은 것이다.⁴³⁾

司馬貞은 『史記·索引』에서 ‘野合’에 대해, “叔梁紇은 늙고 顏徵在는 어려서, 젊은 나이의 초혼 혼례가 아니기 때문에 야합이라 하였으니, 禮儀에 맞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⁴⁴⁾ 何新은 『諸神的起源』에서 이에 대해,

40) “『春秋孔演圖』曰, ‘孔子母顏氏徵在, 遊大冢之陂, 睡, 夢黑帝使請與已交, 語曰, 女乳必於空桑之中, 覺則若感, 生丘於空桑之中.’”(王政, 「孔子“生于空桑”民俗考論」, 『孔子研究』2002. 6에서 再引.)

41) 공자의 부친 叔梁紇을 黑帝로 표현한 것은 고대 感生神話에 속한다. 感生은 인간여성인 人類가 아닌 異類나 자연현상 혹은 사물에 감응하여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지를 모르던 原始母系社會에서 父系社會로 진입하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해졌고, 始祖·제왕·영웅적 인물들의 혈통을 고귀하게 그려서 그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父系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초월적 존재로 신비화한 것이 感生神話이다. (拙著, 「古代中國과 「三國遺事」의 感生神話 研究」, 『清大學術論文集』(인문과학분야) 제1집, 2003. 8. 참조.)

42) “兗州曲阜縣魯城西南三里有闕里, 中有孔子宅, 宅中有廟. …… 干寶『三日紀』云: ‘徵在生孔子空桑之地, 今名空竇, 在魯南山之空竇中.’”(唐)李泰等著, 賀次君 輯校, 『括地志輯校』, 中華書局, 2005, 118-119쪽.)

43) 『史記·孔子世家』: “孔子生魯昌平鄉陬邑. 其先宋人也, 曰孔防叔. 防叔生伯夏, 伯夏生叔梁紇. 紇與顏氏女野合而生孔子, 禱於尼丘得孔子.”(司馬遷, 『史記』, 大申書局, 1978, 1905쪽.)

공자는 아버지 숙량홀과 안씨녀가 야합해서 태어났다. 그러나 기록들을 보면, 공자는 평생 동안 이런 분명한 '예에 어긋난' 가문으로 인해 당시 사회의 어떤 비난이나 멸시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해석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그 야합이 사회에서 허락된 시간과 장소, 즉 春社에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⁴⁵⁾

라고 '야합'이 당시 사회에서 허락된 습속이라 하였다. 孔子가 '空桑'에서 탄생한 것은, 그 부모가 上古時代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桑社'의 高禘 습속, 즉 '桑社'에서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도 되는 관습을 따라 정을 나눈 결과이다. 叔梁紇이 나이가 많음에도 제대로 자신을 이을 아들이 없자,⁴⁶⁾ 後嗣를 얻기 위해 高禘제사에 祈子 하러 갔다가 열여섯 꽃다운 顏徵在를 만나 공자를 낳은 것이다. '野合'은 桑社·桑林·桑台 등이 있는 郊外·野外에서의 交合이라고 말할 수 있다.

孔子의 탄생은 禹임금이 '台桑'에서 塗山氏 여자를 만나 아들을 얻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史記·孔子世家』는 공자의 모친 顏徵在가 "尼丘에서 기도하고 공자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 역시 桑社의 高禘祭祀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낸다. 『周禮·地官·媒氏』에서, "仲春의 달에는 남녀가 모이도록 명하는데, 이유 없이 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벌하였다"라고 한 나라의 명령에 따른 것일 것이다.

이상에서 桑樹와 관련된 탄생 중 대표성 있는 小昊·伊尹·孔子의 탄생신화와 전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모두 採桑의 과정과 桑中·桑社의 高禘祭祀에서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는 고대의 습속을 통해 탄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西周 春秋時期에 편집된 중국 최초의 詩歌集 『詩經』에 採桑과 桑中·桑社의 습속에 관한 詩歌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採桑이나 高禘祭祀 중의 자유로운

44) "今此云野合者, 蓋謂梁紇老而徵在少, 非當壯室初笄之禮, 故云野合, 謂不合禮儀." (司馬遷, 『史記』, 앞의 책, 1906쪽)

45) "孔子是其父叔梁紇與顏氏女野合而生. 但從記載看, 孔子平生從未因這種明顯非禮的家世, 而受到當時社會的任何非難或歧視. 這只能有一個解釋, 就是這次野合發生在社會允許的時間和場合——春社中." (何新, 위의 책, 170쪽.)

46) "숙량홀은 노나라의 시씨를 아내로 맞아 딸 아홉 명을 낳았으나 아들이 없었고, 그 첩이 맹피를 낳았는데 다리에 병이 있었다. 숙량홀은, 비록 딸이 아홉 있으나 적자가 없으니, 이는 아들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孔子家語·本姓解』: 叔梁紇娶於魯之施氏, 生九女人, 無男. 其妾生孟皮, 病足. 叔梁紇曰, 雖有九女, 而無適, 是無子也). ((魏)王肅, 『孔子家語·本姓解』(『漢文大系』第20卷), 民族社, 1982, 쪽.)

만남은 上古時代로부터 전해 내려온 오래된 풍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結論

桑樹는 정신적으로는 고대 중국인들이 숭배하던 神樹였고, 현실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인류를 입혀주고 먹여주던 귀중한 나무였다. 그래서 神聖性和 生命力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男耕女織의 농경사회에서 뽕나무는 특히 女性和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뽕잎 따는 採桑과 養蠶·蠶絲추출 등의 蠶事가 모두 여성의 주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山海經』에서 가장 원시적인 桑蠶의 神인 ‘桑樹에 기대앉아 실을 토하는 여자’를 비롯한 ‘帝女桑’의 炎帝의 딸, 先蠶 嫫祖 등이 모두 여성으로 나타난다.

桑樹가 生命力을 지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의 장소이기 때문인데, 신화와 전설 속에서 小昊·伊尹·孔子와 같은 神과 영웅적 인물들이 窮桑·空桑 등의 뽕나무에서 탄생하고 있다.

『詩經』에서 桑樹와 연관되는 연애시는 대부분 採桑女를 흠모하는 청년의 노래다. 採桑하는 장소는 여성의 일터였고, 청춘남녀가 만나는 사랑의 장소였다. 그래서 桑樹는 애정의 상징이다.

‘桑社’에서의 高禘제사는 자손의 번성을 위한 祈子和, 農耕에 필수불가결한 비를 비는 祈雨제사를 하던 사당인데, 桑中·桑林도 같은 개념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의 증가와 國力증강은 국가와 개개인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출산장려를 위해 나라에서 명을 내려 청춘남녀들을 모이게 했고, 불참자에게는 벌을 내렸으며, 남녀가 情奔이 나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만나 연애를 하도록 하였다. 高禘제사 중의 자유로운 만남은 上古時代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관습적인 하나의 儀式으로, 결코 음란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神話的 인물과 英雄들이 탄생하였다. 그래서 桑中·桑林·桑社는 神과 인간, 남과 여가 生存을 위해 만났던 神聖한 장소였다고 말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漢)劉安, 高誘注釋, 『淮南子注釋』, 台北, 華聯出版社, 1973年.
- (後魏)酈道元, 『水經注』, 台北, 世界書局, 1974年.
- (清)郝懿行注, 『山海經箋疏』, 台北, 臺灣中華書局, 1975年.
- 『十三經注疏』, 『詩經』·『周禮』·『禮記』·『孟子』, 台北, 藝文印書館, 1976年.
- 『楚辭四種』, 台北, 華正書局, 1978年.
- (漢)司馬遷, 『史記』, 台北, 大申書局, 1978年.
- 『漢文大系』, 『孔子家語』·『墨子閒詁』, 서울, 民族社, 1982年.
- (晉)王嘉, 『拾遺記』, 台北, 木鐸出版社, 1982年.
- 袁梅, 『詩經譯注』, 濟南, 齊魯書社, 1983年.
- 袁珂, 『中國神話選釋』, 台北, 長安出版社, 1984年.
- 陳子展, 『詩經直解』,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5年.
- 何新, 『諸神的起源』, 台北, 木鐸出版社, 1987年.
- 袁珂, 『山海經校注』, 成都, 巴蜀書社, 1996年.
- 姜亮夫等撰, 『先秦詩鑑賞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0年.
- 來可泓撰, 『國語直解』,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0年.
- 張雙棣等 譯注, 『呂氏春秋譯注』,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年.
- 聞一多, 『死水·神話與詩』, 貴陽, 貴州教育出版社, 2001年.
- (唐)李泰 等著, 賀次君 輯校, 『括地志輯校』, 北京, 中華書局, 2005年.
- 王孝廉, 「牽牛織女傳說的研究」, 陳慧樺等編, 『從比較神話到文學』, 台北, 東達圖書公司, 1977年.
- 陳桂枝, 「『詩經』與先民之“高禘崇祀」, 『陰山學刊』第14卷:第1期, 2001. 3.
- 王政, 「孔子“生于空桑”民俗考論」, 『孔子研究』2002. 6.
- 陳慶紀, 「論中國古代文學的桑意象」, 『大連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2卷:第3期, 2003年 6月.
- 高莉芬, 「春會的儀典象徵: “邂逅採桑女”的文學原型分析」, 『中州學刊』2003. 9.
- 黃維華, 「桑·桑中·桑女—『詩經』與上古文化研究」, 『中國文化研究』2004年 第3期.
- 丁峰山, 「『陌上桑』復式二重性及與採桑母題演變之關係」,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7卷 2005年 第3期(總第126期).
- 楊東晨, 「中華先蠶嫫祖考」, 『西南科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5卷:第5期, 2008. 10.
- 李白, 「『詩經·魏風·十畝之間』主旨辨析」, 『學術論壇』2009年 第7期(總第222期).

- 陸冰, 「『詩』之桑」, 『蘇州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9卷:第2期, 2012.3.
孟芳芳, 「『詩經』中桑之意象小探」, 『遼寧教育行政學院學報』2013. 4
劉玉川, 「『詩·鄘風·桑中』情詩論」, 『重慶電子工程職業學院學報』, 第22卷: 第5期,
2013. 9.

〈中文提要〉

古代農業社會裏, 桑林祭祀是祈禱農作物的豐收和祈禱繁衍子嗣的祭祀。神话传说中少昊·伊尹·孔子等的誕生都與桑樹有密切關係。當時, 舉行祈雨和祈子祭祀的同時, 也要舉行男女交合儀式。這形成了男女可以自由交往的習俗。

採桑是“后妃齋戒, 親東鄉躬桑”的國家性的主要儀式。高禘祭祀是以求雨和祈子為目的之儀式。此時青春男女在桑林隨意野合, 是為了農作物豐收和人口繁衍的虔誠和神聖的儀式。子孫繁衍·人口增加·國力增強關係着國家與人們個個的生存。所以高禘祭祀時國家獎勵自由交合。在桑中·桑林·桑社野合風俗是普遍的。這種交合, 並不是像現在人們視為淫亂的, 是為了人類的生存而舉行的高禘祭祀裏的一種儀式。本文考察的少昊·伊尹·孔子都通過這種儀式而誕生。因此, ‘桑中·桑林·桑社’可說為生命誕生的神聖的地方。

關鍵詞: 뽕나무, 桑蠶, 高禘, 野合, 少昊, 伊尹, 孔子

이 논문은 2015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5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